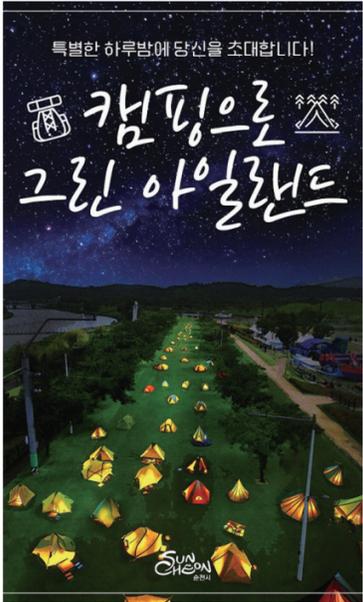


“여름 마지막 밤 즐기러 순천으로 오세요”



31일부터 이틀간 캠핑·비어 축제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신청 성황 접수 개시 2분 만에 전석 매진 이뤄 광장 노는 문화로 지역상권 활력↑

올 여름 순천시가 행사 기획 단계부터 지역 청년, 지역 상인과 함께 오전그린광장의 행사를 준비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의 소비로 이어지고 단발성 행사가 아닌 광장에서 노는 문화가 마련돼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순천시가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지난 9일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행사는 접수 개시 2분 만에 캠핑 사이트 전석이 매진됐다. 자율존을 포함해 72사이트나 되는 구

모였지만 한여름의 열기도 캠핑족을 막을 수 없었다.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그린아일랜드의 잔디 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동천 등 순천의 자연경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행사다. 캠핑과 함께 △마술 공연 △비어(beer) 요가 △새벽 어싱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참여자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그린아일랜드에서 취사 행위나 화기 사용이 금지되지만 이는 참가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는 참가비 3만원 중 2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순심이 배달존’을 운영해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의 소비가 온전히 지역 상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저녁 시간의 캠핑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오전그린광장으로 내려가 여름밤을 밝히는 ‘2024 순천 비어페스타’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지역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춘여행길잡이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청춘 페스티벌’이 올해는 ‘치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순천 비어페스타’로 변신해 돌아왔다.

오는 31일 오전그린광장에서 개최되는 ‘2024 순천 비어페스타’ 행사는 맥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체험 및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다. 라디오 사연 이벤트, EDM 공연, 야간 야외 영화 상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15일부터 24일까지 50팀 한정으로 사전접수 이벤트를 진행해 접수자에게는 돗자리와 치킨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네이버 폼(<https://naver.me/Fmf6pP71>)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전 상인연합회에서는 행사장에 마련된 3개의 배달존으로 치킨을 무료로 배달한다. 참여업체로는 BHC, 노랑동닭, 오꾸닭, 몽실이매실닭강정, 60계치킨, 피자나라 치킨공주, 푸라닭 등이다. 로컬업체인 순천 맥주는 행사를 기념해 소비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제 맥주를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여름밤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지역 상인회, 지역 청년과 함께하여 관광객과 지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장에서 노는 문화가 자리잡고 지역상가에도 도움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4년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 접수

순천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을 빛낸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를 9월6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민의 상 추천 대상자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이다.

다만, 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에 등

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선정할 수 있다.

수상자 선정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제 6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종 수상자 한명에게는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자 추천 방법과 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순천시 자치행정과(061-749-5631)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문가이드 수강생 모집

순천시가 오는 21일까지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문가이드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생 모집은 청암대학교에서 주관하며 모집 인원은 총 25명이다. 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성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순천시가 지난 3월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반려동물동반여행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과정으로, 9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총 13차시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반려동물과의 소통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예방의학 등 반려동물의 이해 전반에 걸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 내 반려동물 동반가능 관광지 현장을 돌아보며 △펫가이더의 역할 및 해설 기법 △반려동물 동반여행 코스기획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반에 걸친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양질의 과정으로 기획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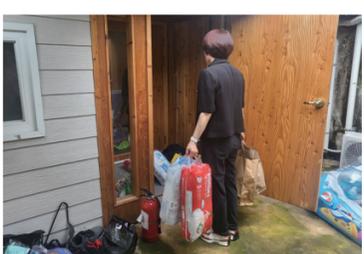
남제동, 다문화 및 장애인가정 출산용품 지원

순천시남제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란)는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과 ‘장애인가정 의류 및 기저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 가정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면서 넷째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은 부부가 모두 심한 장애로 자녀 돌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제동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맞춤형복지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가정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소개와 함께 의류 및 기저귀



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했다.

박미란 남제동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가 관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순천시 제공

덕연동, 청소년 체험중심 안전교육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회장 장성욱)에서는 관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 안전교육은 위기상황 발생 시 우리 청소년들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는 체험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처법 △응급생존키트 체험 △심폐소생술 등이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골든타임 4분 안에 5cm 가슴이 들어가도록 분당 100~120회로 가슴압박을 해 보니 이마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1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체험 소감을 전했다.

장성욱 덕연동주민자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순천의 유산 옛날 사진 공모전

순천시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김준선)는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천의 세계유산과 지역유산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23일까지로, 응모 대상은 2010년도 이전 순천의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갯벌, 지역유산인 송광사, 낙안읍성 등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사진 원본 또는 복사본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 유산의 소중한 역사와 추억이 담긴 사진이라면 전문적인 기술로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응모할 수 있으며, 1인당 10장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의 흔적을 조명하고, 그 가

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이 기간 동안 사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과 세계유산축전이 추억 속 간직해 온 세계유산과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 세계유산축전 누리집(<https://www.scwhf.com>)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순천 세계유산축전 사무국(061-753-2486)으로 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